

레벨1. 똑바로 서라 문법!

<머종이형과 달려라 보충자료2>

- 평가원 모의고사형 -



현 메가스터디 러셀 강사
현 본당 명인 강사
전 오르비 전체 1타 강사
저서 :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대중 모의고사

<챕터1. 품사와 문장 성분>

<품사 - 대명사>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1)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품사 - 조사>

2.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보 기>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① ㄱ의 '께서, 예'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품사 - 조사, 보조사>

3.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재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품사 - 감탄사>

4.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4)

<보 기 >

- 아 들 :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 뭐,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 글썄, 사 줘야 되나?
 아 들 :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호지부지할 거지?
 아 들 : 그런데, ㉤ 읊,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 글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문장 성분>

5.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

<보 기>

-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문장 성분>

6.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6)

<보기 1>

문 장

- 아침에 하는 ㉠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 달리기 시작했다.

설 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쩍게 ㉢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문장 구조>

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
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져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물었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어미에 대한 이해, 종결 표현과도 관련>

8.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8)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챕터2. 표현 파트>

<종결 표현>

9.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
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학 생 :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 아 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 A :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학생 B : 나도 언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 니 : ㉣어쩜 이럴 수 있니?
 - 동 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라 |
| ② | 가 | 나 | 다 | 라 |
| ③ | 나 | 라 | 다 | 가 |
| ④ | 다 | 라 | 가 | 나 |
| ⑤ | 다 | 라 | 가 | 나 |

<종결 표현 관련 - 어미, 조사>

10.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0)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아니, 몰라.”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슴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항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친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 뭘 할까? • 어서오, 빨리오. [㉠] ‘오’, ‘어떻게’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종결 표현 관련 - 어미, 일치차이법 적용>

11.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1)

<보 기>
가.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나.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다.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라. 영화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마.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가과 나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가과 다를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가과 다를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가과 다를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다과 다를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종결 표현 관련 - 어미>

12.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얘기를 듣<u>습니까</u>? / 얘기를 듣<u>소</u>? ○ 의자에 앉<u>아라</u>. / 빨리 밥을 먹<u>어라</u>. ○ 날씨가 덥<u>다</u>. / 날씨가 덥<u>지</u>. / 날씨가 덥<u>네</u>. ○ 비가 그치<u>겠다</u>. / 비가 그치<u>겠니</u>? / 비가 그치<u>겠구나!</u> ○ 철수가 똑똑하<u>다</u>고 생각한다. / 누가 가<u>느냐</u>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종결 표현 관련>

13. <보기>의 [A]에 들어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보 기>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으로 구분하여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구나.”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구나’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더라.”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더’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들이다.
[A]

- ① 딸 : 오늘 날씨 어떻대요?
아버지 : 눈이 아주 많이 온대.
- ② 여학생 :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남학생 : 나는 조금 있다가 먹을래.
- ③ 학생 1 :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러서.
학생 2 : 어찌지? 철수가 아직도 안 왔네.
- ④ 김 대리 :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이 대리 :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 ⑤ 아들 :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어머니 :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겠어.

<중결 관련 표현>

1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14)

<보 기 >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말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시제 표현>

15. <보기>의 ㉠~㉢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점] 15)

<보 기 >

사람들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을 한 시점을 비교하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인식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진행', '완료'로 구분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시간 표현의 예]

- 나는 밥을 ㉠ 먹고 있다.
- 어제 나는 박물관에 ㉡ 갔었다.
- 우리는 한글을 오랫동안 ㉢ 사용해 왔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완곡한 표현>

16.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16)

<보 기 >

청자에게 명령·요청·부락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명령문 대신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효과는 ㉠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얻을 때도 있다.

- ① 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부쳐 주세요.
- ②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동네에는 꽃집이 열 없을 것 같지?
- ④ 이게 몸에 좋다니 한입에 쓱 들이켜라.
- ⑤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니?

<높임 표현>

17. <보기>의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17)

<보 기 >

①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신다.
 ②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③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 ① ㉠-말하는 이 ㉡-주체 ㉢-주체
- ② ㉠-듣는 이 ㉡-주체 ㉢-주체
- ③ ㉠-듣는 이 ㉡-대상 ㉢-듣는 이
- ④ ㉠-주체 ㉡-듣는 이 ㉢-주체, 듣는 이
- ⑤ ㉠-주체 ㉡-대상 ㉢-주체, 듣는 이

<높임 표현>

1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

<보 기 >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 응.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들어서 알아봐.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어쨌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높임 표현>

19.<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9)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능피주사 표현>

20.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20)[3점]

<보 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ㄱ 동생이 새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ㄱ ㉠: 운동화 끈이 풀렸다.
 ㄴ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ㄱ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엎혔다.
 ㄴ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엎혔다.
- ③ ㄱ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ㄴ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ㄱ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ㄴ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ㄱ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ㄴ ㉡: 아기곰이 어미곰에 포근히 안겼다.

<능피주사표현>

21.<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21)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 습 자 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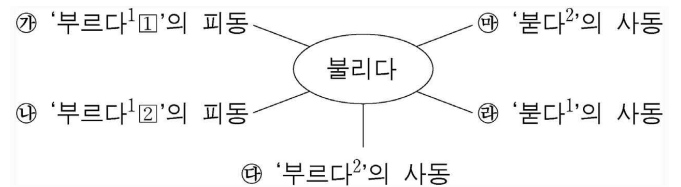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 군.

<능피주사표현>

22.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87%)22)

<보 기>

부르다¹ ㉦ ㉧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²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불다¹ ㉪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불다² ㉫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 ①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재라고 불렀다.
- ②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러 갔다.
- ③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중의적 표현>

23.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3)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중복 표현>

24. <보기>의 ㉠, ㉡과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24)

—<보 기>—

㉠'저희들'이나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 | | |
|-------|-------|-------|
| ① 뺨골 | ② 외갓집 | ③ 씹씹이 |
| ④ 단옷날 | ⑤ 교차로 | |

<지칭, 호칭어 사용>

2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5)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p>[은미의 고모가 은미집을 찾아온 상황]</p> <p>할머니: 어서와라. ㉠김 서방도 잘 지내지</p> <p>고모: 네, 엄마.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p> <p>엄마: 네,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p> <p>고모: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p> <p>은미: 아니에요,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p> <p>고모: 응,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p>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관용 표현>

26.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6)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허를 내뉘렸다.
(→ 안쓰러워하다)

27.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

<보기 1>
 'A+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 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 2>
 가.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나.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다.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이다
 라. ㉠ 닭 잡아먹고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오리발을 내밀다
 마.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가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나, 다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다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라의 ㉠⇒㉡는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마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챕터3. 표기, 문장 다듬기 파트>

<표기 - 준말>

28.<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28)

보기

◦ '나, 키, 나, T, -'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배, 켜, 피, 기, 니'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멍이	깊게 ㉡ 구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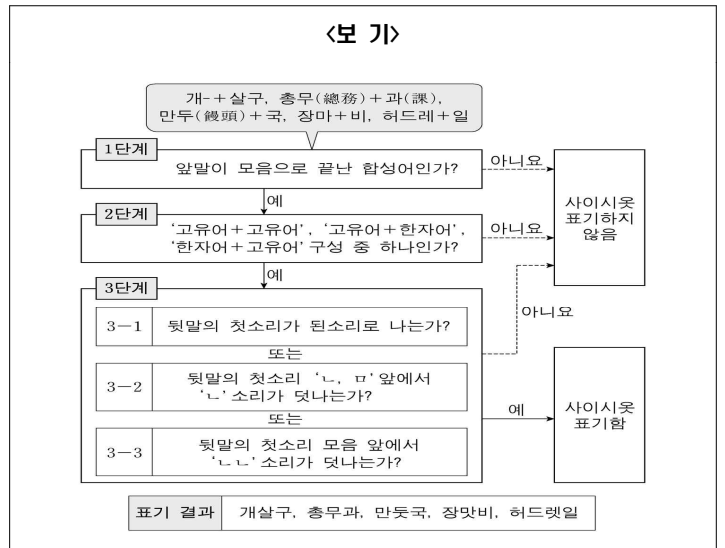
◦ '배, 켜'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멍이가 깊게 ㉢	구멍이가 깊게 꿇다

- | | | |
|-------|----|-----|
| ㉠ | ㉡ | ㉢ |
| ①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패다 | 팬 | 패었다 |
| ③ 패다 | 패인 | 패었다 |
| ④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패이다 | 패인 | 패었다 |

<표기 - 사이시옷>

29.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9)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표기 - 이, 히>

30.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30) [3점]

<보 기>	
<p>[제19항]</p> <p>◦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p> <p>예 먹이, 굴이, 같이 ㉠</p>	
<p>[제25항]</p> <p>◦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p> <p>예 꾸준히, 깨끗이 ㉡</p> <p>◦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p> <p>예 더욱이, 생긱이 ㉢</p>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긱이 웃다'의 '방긱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표기>

31.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은? [1점]31)

- ① 아직 문자 멧시지에 대한 회답이 오지 않았다.
- ② 그는 하고 싶은 말은 아무 말이나 마구 뺄는 성미이다.
- ③ 인터넷 동호회 계시판에는 밤새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 ④ 구름은 말짱히 걸쳐 버려 산마루 뒤로 물러앉아 있었다.
- 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문장 다듬기>

32.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2)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문장 다듬기>

33.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3)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p>사례1</p> <p>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p> <p>이유</p> <p>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p> <p>→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①</p>	
<p>사례2</p> <p>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p> <p>이유</p> <p>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p> <p>→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②</p>	
<p>사례</p> <p>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p> <p>이유</p> <p>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p> <p>→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③</p>	
<p>사례4</p> <p>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p> <p>이유</p> <p>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p> <p>→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④</p>	
<p>사례5</p> <p>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p> <p>이유</p> <p>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p> <p>→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⑤</p>	

34.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② ㉡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③ ㉢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④ ㉣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⑤ ㉤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문장 다듬기>

3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35)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가) (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장 다듬기>

36.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36)

- 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의 국민답게 질서를 잘 지킴시다.
 ② 험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동료들은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③ 선생님 말씀이야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통하거나 하겠어요?
 ④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나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곤혹스럽기만 했다.
 ⑤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와중에도 일터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1) ①

①에서 '가'의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서 1인칭 대명사이고 '나'의 '저희'는 '애들'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재귀대명사)이다.

2) ④

조사의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과'이고, 조사의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와'이다. 즉, '와/과'는 앞말의 받침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따라서 '와/과'가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된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3) ④

'요'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을 바꾸지는 않으면서 존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미이다. 그런데 '요'는 '갈까요', '빨라요', '더우면요', '마음은요' 등처럼 종결 어미, 부사어, 연결어미, 주어 등에 쓰여도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 따라서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③

12. '글썸'이라는 감탄사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보기>에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 글썸'의 형태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했을 때는 '㉡ 글썸'이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③은 적절한 설명이다.

5) ②

<보기>의 s은 부사어 '식당에서'를 제외한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결국, 필수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세 개다.

6) ③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이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보기 1>에서 ㉠의 '달리기'는 명사로서 관형어 '하는'의 수식을 받으며, ㉡의 '달리기'는 동사로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는다. <보기 2>에서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과 ㉣인데, ㉢은 '추-'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은 '걸-'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땃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장'의 수식을 받는다.

7) (2014-9월) ④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다)는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만들어진 겹문장인데, 이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되어 (다)의 관형절에서는 (가)의 주어 '민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④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가 '나는 사실을 몰랐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겹문장을 형성할 때 원래 있던 주어 '정수가' 생략되지 않았다. 따라서 ④는 ㉠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동생이 숙제를 한다.'가 '형이 동생을 불렀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동생'이 생략되었다. ㉡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가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형'이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형'이 생략되었다. ㉢ '경희가 버스에 탔다.'가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경희'가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경희'가 생략되었다. ㉤ '화가 이 그림을 그렸다.'가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에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화가'가 중복되어 원래 있던 주어 '화가'가 생략되었다.

8) ③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서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그 종류에 따라 평서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 '읽었다'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보기>에 제시된 ㉡ '읽을'의 '-을'은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으로, '가는'의 '-는'은 ㉢의 연결 어미가 아닌 ㉢의 전성 어미, 그중에서도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맥락에 따라 '-지'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9) ①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은 '일어나지 못하겠나?'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0) ③ 각 품사의 기능,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아니요'와 '아니오'에 대한 탐구를 일반화하여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어말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확인하면 '아니요'는 부정의 대답 '아니'에 보조사 '요'가 붙어 된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 어미 '-오'가 붙어 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종결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③으로, "당신이 와서 기쁘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도 종결 어미 '-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의 '적용' 단계에 제시된 빈칸에는 '요'가 아닌 '-오'가 와서 '안 되오'가 되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칸에 '요'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되어'의 준말 '돼'에 보조사 '요'가 붙은 '돼요'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아니-', '기쁘-' 등은 모두 어간이며 여기에 '-오'가 붙어 '아니오', '기쁘오'로 실현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멈추시오'는 '멈추- + -시- + -오'로 분석되어 '용언 어간+ 선어말 어미 + 종결 어미'의 구조인데, 이를 통해 '-오'가 선어말 어미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를 뺀 상태의 문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십시오, 가오, 가계, 가라(가렴, 가려무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상대방을 보통 정도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 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11) 정답 ⑤

11. ㄷ과 ㄹ의 문장에서는 어미 '-려'가 공통적으로 비문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ㄷ과 ㄹ의 각 문장에서,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는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⑤는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12) ①

<보기>의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었/았-), 현재(-ㄴ/는-), 미래(-겠-)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13) 정답 ②

12. <보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가 사용된 용례이다. ②의 '먹을래'에서 '-을래'를 통해서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다. 주어인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즉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담고 있는 표현이다.

14) 정답 ①

12. '인용 발화'는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①은 자신의 기쁨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성격으로 한 말이다. 즉, ①의 서술어에 들어 있는 '-답니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합쇼체의 종결 어미이므로 '인용 발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②~④의 경우는 '인용 발화'에 해당한다.

15) ③

시간 표현에 대한 <보기>의 그림과 설명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통해 ㉠은 '과거'이며,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서 ㉡은 '진행'이고, ㉢은 '완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 정답 ①

11.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명령하거나 요청 혹은 부탁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완곡어법에 속하는 표현인데, 먼저 문장이 '명령하거나 요청 혹은 부탁하는 상황'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다음, 밑줄 친 어휘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청자에게 전달되는 말의 부드러움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답을 찾는다. ①에서 '좀'은 '조금'의 뜻으로 어휘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말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할 수 있다.

17) ㉠은 '주체', ㉡은 '대상', ㉢은 '주체와 듣는이'가 높임을 받고 있다.

18) (2014-9월) ② 높임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말씀'은 말하는 이(경준)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서술어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③ ㉡에서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다'가 아니라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 '여쭙다'를 써서 말해야 한다. ④ ㉢의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영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당신'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⑤ ㉣의 주체는 영희의 입장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여 '말씀하셨잖아'라고 말해야 한다.

19) ⑤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내가) 이제 오느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느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느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열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20) (2014-6월) ⑤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동사와 피동사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기다'의 '안기다'는 사동사이며, ㉡'아기 품이 어미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이다. 참고로 '품에 안기다'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도 사동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운동화 끈을 풀다', '피로를 풀다'와 비교할 때 ㉠'운동화 끈이 풀리다'의 '풀리다'와 ㉡'피로가 풀리다'의 '풀리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②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다'와 비교할 때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다'의 '업히다'는 피동사이며, '이모가 아이를 업다'와 비교할 때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히다'의 '업히다'는 사동사이다. ③ '웃이 마르다'와 비교할 때 ㉤'웃을 말리다'의 '말리다'는 사동사이다.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니며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④ '몸이 녹다', '고드름이 녹다'와 비교할 때 ㉦'새들이 몸을 녹이다'의 '녹이다'와 ㉧'햇살이 고드름을 녹이다'의 '녹이다'는 모두 사동사이다.

21) ②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에 대해 제시된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함에 비해,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누나가'라는 주어에 더해 각각 '동생'과 '실내 온도'라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이 누나에게 선물을 준다."의 '준다'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할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계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에서 A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에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③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과 ㉡의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다. ④ ㉢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데 B의 사례가 없음을 통해 '공을 차다'의 서술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A(주동문)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의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계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22) 정답 ③

11. ③에서 ㉡의 예문에 사용된 '불릴'은 '(아이들의 배를)부르게 하는'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기>의 '부르다'-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든다.'에 해당하며 그 사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3) ③

의미의 중의성 파악 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24) ㉡
 ②의 ‘외갓집’은 앞말인 ‘외가’라는 표현으로도 ‘가’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조건 1), 앞말인 ‘가’의 뜻이 중복된 ‘집’이라는 말을 덧붙여 (조건2)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중복 유형이 <보기>의 ㉠, ㉢과 동일하다.

25) (2014-6월) ㉡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 속에 쓰인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 속에서 지시 대상, 화자, 청자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이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③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26) ㉢ ㉤
 [관용 표현의 이해] ㉢ ‘혀를 내두르다’라는 관용 표현은 ‘매우 놀라거나 감탄하여 마치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27) 정답 ㉡
 11. ㄴ과 ㄹ의 서술어는 모두 ‘치다’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였고, ㄹ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서술어 ‘치다’가 의미 쏠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통해 의미 쏠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한 ㉡는 적절하지 않다.

28) ㉢ ㉤
 [어법의 이해와 적용] ㉢ ‘파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동사의 어간은 ‘파’로 ‘ㅏ’로 끝난 어간인데, 여기에 ‘-이’가 와서 줄 적에는 준대로 ‘ㅍ’라 적는 다 했으므로 ㉠은 ‘패다’가 적절하다. 또한 이것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활용 형태를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경우인 ‘파이’+ ‘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파이’는 ‘패’로 줄어 ㉢은 ‘팬’이 된다. 그리고 ‘파이’가 줄어든 형태인 ‘패’에 ‘-었-’이 어울려 준 형태가 준 대로 적은 것이 ‘팸’이므로 ㉢은 ‘패었다’가 줄기 전의 본말 형태이다. ㉤ ㉡ ‘패었다’는 ‘파이’의 준 말인 ‘패’에 ‘-이-’를 중복해서 사용한 후 ‘-었-’과 어울려 사용한 것을 줄여 쓴 것(‘파+이+이+었+다’)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표기이다. * 참고로 ‘하다’ 동사의 경우에는 어간 ‘하-’에 과거형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 될 경우에는 ‘하였다’가 아니라 ‘하였다’로 쓰이는 ‘여’ 불규칙 현상이 나타난다.

29) ㉣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조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이다. ‘장마비’는 ‘장마+비’의 합성이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 발음은 [장마뻬] 혹은 [장만뻬]이므로, 3-2단계를 아닌 3-1단계를 만족한다. 즉,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장마뻬’로 적는 것은 맞지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되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개살구’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개살구’로 적어야 한다. ② ‘총무과’는 ‘총무(總務)+과(課)’, 즉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므로 2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총무과’로 적어야 한다. ③ ‘만두국’은 ‘만두(饅頭)+국’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만두꾸] 혹은 [만돌꾸]이므로, 3-1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만두국’으로 적어야 한다. ⑤ ‘허드렛일’은 ‘허드레+일’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허드렛닐]이므로, 3-3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허드렛닐’로 적어야 한다.

30) (2014-9월) ㉤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일찍이’가 된 것이므로 ㉢의 ‘더욱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더욱이’ 역시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부사 ‘더욱이’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급히’는 ‘급하다’의 어근 ‘급-’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꾸준히’ 역시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방긋이’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생긋이’ 역시 부사 ‘생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③ ‘많이’는 ‘많다’의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같이’ 역시 어간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④ ‘깊이’는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굳이’ 역시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31) ㉡
 ①의 ‘맺지’는 ‘메시지’가, ③의 ‘계시판’은 ‘게시판’이, ④의 ‘걸쳐’는 ‘걸혀’가, ⑤의 ‘맺가’는 ‘대가’가 표준어이다.

32) (2014-9월) ㉠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은 목적어 ‘밭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와 서술어가 호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③ ㉠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불편’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④ ㉠에서는 ‘운동을 동참합시다’를 ‘운동에 동참합시다’로 수정하였는데, 서술어 ‘동참합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다. ⑤ ㉠에서는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일이다’를 ‘일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33) (2014-6월) ③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잘못된 우리말 문장을 '이유'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은 ③으로,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한다'와 '동물은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서술어 '기대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 '사람에게'가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례 1]의 주어 '사람들은'과 서술어 '경향이이다'가 호응하지 않지만 서술어를 '경향인 것이다'로 수정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과 호응되지 않는다. ② [사례 2]에서는 '야구를 차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공이나 야구를 하다'로 수정하면 이번에는 '공을 하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를 하거나 공을 찬다.' 정도로 수정하여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④ [사례 4]는 '사람을 좋아하는'이 꾸미는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문이다. '고양이가' 뒤에 쉼표를 찍는다고 해서 이러한 중의 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나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정도로 수정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⑤ [사례 5]는 조사가 잘못 쓰인 문장인데, '누구나'를 '누구도'로 수정한다고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조사의 오용을 바로잡아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다.

34) ③

문장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여전히'와 같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이다. 예를 들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그 사태의 해결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에는 '대하지'와 호응하는 '누구에게'의 부사어나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에는 '지내기도'와 호응하는 '누구와'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에는 '존경했다'와 호응하는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에는 서술어 '유학자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35) ③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녀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등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 의미에 따라 '(으)로 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레'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36) ⑤

⑤의 '와중'은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의 뜻이다. 여기서는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것이므로 '시간에도'라고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